

한국경제

유학생·재미 교포 취업 박람회..경쟁률 100대 1 넘어

이공계 석사·금융 전공자 인기

해외 유학생이 10 만명을 훌쩍 넘겼다.

귀국만 하면 대접받는 시대는 지난 지 오래다. 인맥이 부족한 데다 한국 조직 문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유학과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도 있다.

그렇다고 미국 등 유학 국가에 취직 하려해도 인종,언어 장벽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.

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'2007 미주 코리안 취업박람회'에는 1500 여명의 유학생과 재미교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. 미국에서 유학생 취업을 위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미래에셋, 포스코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동부제강, 웅진코웨이 등 10 개의 한국 기업과 HSBC,PNC 은행, 뉴욕라이프, 스테이트팜, 푸르덴셜, 로열소버린전자, 제이원전자, 엔터프라이즈 렌터카, 뉴욕시경, 미육군 등 40 여개 외국 기업이 참가했다. 그 결과 100 여명가량이 취업의 행운을 얻었다.

국내 기업 중에는 포스코가 금속 및 기계공학 전공자,전자통신연구원은 전자공학 석·박사를 중심으로 각각 5 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삼양사도 2~3 명가량의 화학전공자를 연구개발직으로 뽑았다. 미래에셋은 5 명의 금융 분야 석사를 채용했다.

미국 기업으로는 제이원전자가 5 명의 전자공학 전공자를 선택했고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메트라이프도 10 명의 한국인을 스카우트했다.

전체적으로 참가자 중 60%가량이 유학생이었고 재미교포 2 세와 1.5 세대 등이 40%를 차지했다. 석·박사 참가자 비율도 전체의 30%였다. 특히 이공계열 석사급 이상 전문인력의 인기가 높았고 인문계열에선 금융분야 전공자들이 관심을 끌었다.

이번 행사를 주관한 제일인재기획 김성민 사장은 "내년 6 월과 11 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100 여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,11 월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도 마련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김동욱 기자 kimdw@hankyung.com